

「Y2K 119 기술지원단 발대식」 개최



컴퓨터의 2000년도 인식오류인 Y2K 버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Y2K 119 기술지원단」이 지난해 12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 오명 동아일보 사장, 정장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과 손윤휴 부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이달 15일까지

지비상 대기한다. 삼성SDS, 현대정보기술, LG-EDS시스템, 포스데이터 등 38개 SI업체의 전문가와 삼보컴퓨터, 현대멀티캡, 한국IBM 등 8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전문가, Y2K인증 심사원 중에서 선발된 1000여명의 최고 전산전문가들로 구성된 「Y2K 119 기술지원단」

은 상황 근무, 긴급 출동, 출동 대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비상 대기하고 있다가 Y2K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로 달려가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무료로 해준다.

「Y2K 119 기술지원단」은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규모가 큰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Y2K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을 보다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Y2K 119 기술지원단」의 지원을 받으려면 정보통신부에 설치된 「Y2K상황실」과 「핫라인」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 있는 지역상황실로 연락하면 된다.

제1회 「리눅스 우수 소프트웨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내 리눅스 이용의 활성화와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의 발굴을 위해 마련된 제1회 「리눅스 우수 소프트웨어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달 21일 COEX 인터컨티넨탈 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리눅스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정

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오픈소스 부문 12편, 상용S/W 부문 31편 등 총 응모작 43편 중 1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한글과 컴퓨터사의 「리눅스용 한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금상에는 오픈소스 부문에 황치덕 씨가 개발한 리눅스용 통신프로그램 「가우」가, 상용S/W 부문에 삼성전자의 리눅스 OS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정보 단말기 「ZZI-Web based on Linux」가 선정되었다.

4편의 은상에는 정병수 씨가 개발한 리눅스 기반의 알파머신 Mini-BIOS MILO와 미지러서치의 한글입력기 「hanIM」, 아라기술의 「SmartIP」, 쓰리알소프트의 「MailStudio2000」 등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밖에 동상에는 다준기술의 「Web-Builder」, 씨네티아정보통신의 「DreamBBS 21」 등 10편이 선정되었다.

■ 협회, 3일 시무식 갖고 새해 업무 시작



협회는 신정 연휴가 끝난 1월 3일 협회내 회의실에서 손용기 부회장 등 전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손용기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고속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때 정보통신분야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회원사의 이익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벤처창업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창업 붐 조성과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지난해 10월 열린 제1회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의 수상자와 심사위원, 경진대회 관계자 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협회 창업지원팀이 지난해 12월 13일 손용기 부회장과 오해석 경진대회 심사위원장, 유리벤처장학회 조해성 이사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경진

대회 수상자 23명과 함께 「벤처창업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것.

이번 간담회는 ▲수상자들의 모임 활성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 모임이 실질적인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벤처창업 홈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수상자들이 실제 창업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기타 수상자

들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진대회 수상자들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향후 정보통신부 및 협회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협회는 경진대회 수상자들의 모임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벤처창업 경진대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고 이달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 「분실휴대폰 주인찾아주기 캠페인」 경품 추첨



협회는 지난해 12월 23일 협회 내 회의실에서 손웅기 부회장과 정보통신부 박인환 사무관 및 국내 주요이동전화 5개사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실휴대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2차

경품추첨행사를 갖고 105명의 당첨자를 추첨을 통해 발표하였다. 추첨 결과 1등 EF소나타를 받는 행운은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주현주 씨에게 돌아갔으며, 2등 노트북컴퓨터는 전남 보성군의

임부택 씨, 서울 강북구의 윤승중 씨에게 각 1대씩, 3등 금강산관광여행권은 경남 김해시의 김이연 씨, 인천 계양구의 박재범 씨에게 각 2대씩, 4등 폴더용 핸드폰은 서울 강서구의 반중현 씨 등 100명에게 돌아갔다. 이번 행사는 우리 협회가 정보통신부, 이동전화 5개사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우체국을 통해 실시한 분실 「휴대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행사에 분실 휴대폰 습득 사실을 신고해온 7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 「EC활성화 방안 및 정책과제 도출회의」 개최

협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조선히텔에서 정보통신부 이승원 사무관, 협회 한태인 조사통계실장·조영훈 전자상거래팀장, 연세대 김진우교수, Cals/EC협회 김창환부장 등 EC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EC활성화 방안 및 정책과제 도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EC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나 부가세 인하, 보험료율 인하 등의 금융·세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EC산업 촉진을 위해서는 무역자동화방법 관련 지

정사업자 제도 폐지 또는 완화, 병영특례지정업체·벤처기업·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선정시 가산점 부여, EC사업 현황을 감안한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포함된 표준이용약관 마련 및 권고 등의 각종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밖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터넷모범상점 인증제도 효과에 대한 국내의 조사 수행,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EC사업체 홈페이지 홍보를 위한 공동SITE 운영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협회 조영훈 전자상거래팀장은 “2000년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하지만 EC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한데 모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